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성황리 마무리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38만여 명 발걸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꽃 축제인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제는 폭염과 가뭄으로 상사화 개화가 늦어져 방문객 수가 24만여 명에 그쳤으나, 올해 축제 기간 중에는 상사화 꽃이 절정에 이르러 자체 집계 결과, 총 3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가을을 대표 꽃 축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 캐릭터 '상사호(虎)'다. '상사화를 사랑한 나머지 상사화 꽃밭에서 뒹굴다 붉게 물들어버린 불갑산의

호랑이'라는 스토리에서 탄생한 상사호는 축제장 곳곳의 포토존과 굿즈 이벤트, 포스터 및 홍보 영상 등에 활용되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SNS 인증 이벤트와 굿즈 증정 행사로 앞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프로그램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움으로 채워졌다. 낮에는 수십만 송이 상사화 군락지를 거니는 '상사화 꽃길 걷기'와 밤에는 은은한 경관조명과 달빛이 어우러진 '상사화 달빛야행'이 펼쳐져 색다른 낭만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 선보인 어린이 프로그램,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체험·홍보관, 향토 음식관, 특산물 판매, 라이브 커머



스 행사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 숙박·음식업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올해 상사화

가 절정에 이르러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상사화 군락지 확대와 축제장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통해 즐겁고 의미있는 특별한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일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 3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의 자랑인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며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

화순군, '재가암환자 및 가족 숲 치유 체험활동' 운영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마음 치유, 몸 치유로 건강 Up

는 계기가 되었고, ▲숲속 휴식, 해먹 체험 ▲젓가락 만들기 ▲도구 활용 이완 마사지로 구성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조모임 참여자는 "우리 군에 이런 장

소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맑은 공기와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마치 멋진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다"라고 체험 내용을

만족해하였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숲 치유 체험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이 답답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치유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가암환자들이 원하는 몸과 마음에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곡성군, 가을철 관광객 대상 귀농귀촌 상담 진행

10월 한 달간 관광객 대상 푹방마켓에서 상담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인 '푹방마켓'에서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귀농귀촌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상담부스는 지난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두 기관은 현장을 방문한 도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곡성 정착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부스에서는 곡성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비롯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선도농가 체험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관광객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주거, 일자리, 영농 정착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귀농 준비 단계부터 정착 이후까지 필요한 행정 지원제도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지역 농특산

물 시음과 홍보, 곡성물 소개 등이 병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상담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여행 중에 실제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 곡성의 자연환경과 주민 분위기가 좋아 귀촌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축제나 플라마켓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귀농·귀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선배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명절 귀성객 환영행사, 귀농체험 프로그램, 마을정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보건소 앞에서 임산부 등 진도군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복합 공간이며, 출산과 육아의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고, ▲어린이 자동차 놀이시설 '도담도담 놀이터' ▲수유실 ▲맘앤아이 쉽터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부모들 간에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산불 흔적이 희망으로... 함평군, 피해목 톱밥 80톤 무상 지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3년 4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쓰러진 나무를 자원으로 되살려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지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 산불 피해지 26ha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해 생산한 깔개용 톱밥 80톤을 지난 1일 함평군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역 한우 농가에 무상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산불 피해목 무상 벌채(수집)와 벌채 면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용 톱밥 무상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축산농가 깔개용 톱밥과 톱밥 293톤을 무상 공급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톱밥 지원은 3번째로 실시됐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안군, 추석명절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성황리 종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4일 무안전통시장에서 펼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행사로 약 1,150명에게 총 2천 3백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됐으며,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되어, 명절을 맞아 수산물 제수용품 구입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